

D. 소비자재무

가계부채의 심리적 부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예희(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김정인(코리아크레딧뷰로(주) 부사장/연구소장)

201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4%로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33% 보다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 보유실태를 분석한 전승훈, 임병인(2012)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금융부채는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경상소득과 저축액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특히 60세 이상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모두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개별가계의 가계대출에 대한 인식은 경제학자들이 숫자로 분석한 가계 부채에 대한 인식과는 다를 수 있다. 이은영 허은정(2005)는 부채가계의 연체행동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부채부담이 객관적 부채부담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연체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주관적 부담이 객관적 수치로 설명되지 못한 미래의 현금흐름과 같은 가계의 불확실성이나 부채에 대한 태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계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가계의 심리적 인식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가 가지는 부채에 대한 심리적 부담 수준을 확인하고, 객관적 부채 관련 위험 지표가 어떻게 주관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채에 대한 부담의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가구원수, 생애주기상 위치, 입주형태, 자산수준,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채관련 객관적 위험지표인 대출잔액, 월평균소득 대비 월평균 원리금상환액, 연 부채상환액 대비 연소득, 금융자산대비 부채잔액과 금융자산대비 원리금상환액, 그리고 부채의 종류중에서 어떠한 요소가 심리적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또한, 부채소유 가구 중에서 월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의 비율이 높은 집단을 선정하여, 부채부담을 느끼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로 나누어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하는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가족구성원수가 많을 수록 부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인지했으며, 생애주기상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계,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계, 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이 있는 가계, 소득이 높고 금융자산이 많은 가계일수록 부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관련 위험 지표 중에서 부채규모와 매월 부채상환금은 가계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부채규모가 고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나는 현상과 더불어 부채의 크기 자체만으로는 부채에 대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가계의 부채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보인 부채 위험 지표는 지난달 소득 대비 월 대출금 상환액이었고, 금융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그 다음으로 부담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부채가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는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심리적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의 종류도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개인적인 부채의 경우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객관화된 지표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제공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의 사적인 부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 하였다. 둘째, 월소득 대비 대출금 상환액이 높은 집단의 경우 서울에 사는 가구가 타지역에 사는 가구보다,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심리적 부담을 느낄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보유가 가계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서울 거주자의 경우 동일한 객관적 부채 위험 지표에도 심리적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 가계 부채 관련 정책을 논의하거나 지표를 산정할 경우 거주 지역을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중국유학생의 유학생 보험에 대한 인지수준 및 활용도

왕맹, 맹상, 진동접, 당민접, 왕신우(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졸업생)
김민정(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최근 국내 대학에서는 글로벌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를 하고 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월 현재 한국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총 92,789명이며, 2014년 교육과학기술부가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는데, 정순희(2009)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잠재된 의료 수요가 매우 많지만 보험 미가입, 의료기관 관련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중앙일보(2009)에서 2009년 12월 한중문화협회가 중국인 유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생활 중 가장 힘든 점으로 문화적 차이 다음으로 의료문제라는 조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추가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유학생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균부담액의 절반을 지불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 또는 가입 방법을 모르거나(55%)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64.5%)로 가입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학교별로 유학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유학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유학생 보험의 주 보장내용은 실비의료보험에 준하는 내용으로 병원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유학생 중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여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서 가입한 보장내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유학생 보험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가입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자세한 설명과정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유학생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활용측면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외국 유학생 중 중국유학생이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속한 충북대학교에 역시 중국유학생이 대부분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유학생들은 보험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40.4%)이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거나(25.2%), 손실방지 또는 손실을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21.2%)고 생각하여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의 60% 이상은 국제교류원을 통해 유학생보험에 가입하였고 납입한 보험료가 얼마였는지에 대해 절반 정도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입한 보험이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73%). 특히 보장 내용과 보장기간에 대해 전

혀 모른다는 학생이 각각 44.6%와 40.8%였고, 보장범위에 대해서도 45.8%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가입한 보험회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약 54% 정도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학생들은 보장기간에 대해서만 11% 정도의 학생이 응답하였고, 나머지 항목(보장내용, 보장범위,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5% 정도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8.4%에 불과하고 나머지 91.6%는 보험금을 청구해본 적이 없는 결과와 함께 생각할 때, 가입한 보험을 활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해본 적이 없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병원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병원비가 걱정이 되어서 병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배제하지 못하며, 그럴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유학생보험가입의 목적이 유학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지하는 학생들이 50.8%인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실제 27% 정도의 유학생들은 유학생보험의 가입에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셋째, 유학생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혀 듣지 못한 학생들이 각각 51.6%(보장내용), 49.2%(보험금 청구방법)로 나타난 반면, 자세하게 들었다는 학생들은 각각 5.2%(보장내용)와 3.2%(보험금 청구방법)에 불과하였다. 또한 보험가입 후 증권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받지 않았거나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학생이 85% 정도에 달하여 15.6%만이 증권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대학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유학생들에게는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벗어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넷째, 금융소비자의 책무로써 유학생 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확인하려고 노력해 보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약 73%의 학생이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귀찮아서가 41.5%로 가장 많았고, 어차피 가입해야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23%씩이었다. 또한 노력한 경우에는 약 35%가 가입한 국제교류원의 직원에게 물어보았으며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학생들이 약 35%였다. 반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알아본 학생은 12%에 불과하였고 친구에게 물어본 학생은 24%였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학생 보험의 가입이 의무적인 만큼 유학생들이 보험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학생 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제교류원의 직원이 아닌 전담 보험설계사의 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유학생 보험 설명 및 관리 서비스는 국제교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학내에 있으므로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교류원과 해당 보험회사의 유학생보험 전담 보험설계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학생들을 고객으로 응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도록 학교차원에서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연기 희망자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

이하나(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김민정(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우리나라는 중고령자의 인구수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장수위험에 대비하여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급시기 조정 및 연금보험료의 증액 등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길어진 평균수명에 대한 장수위험 대비에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과 관련된 제도 중 수급 연령에 도달하였더라도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1회 신청에 한해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기되는 1개월 당 0.6%씩 가산하여 연 7.2%의 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15). 지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최근에는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연 7% 이상의 금리효과를 볼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는 노후대비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급예정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연기연금 신청자는 864명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2,471명으로 무려 1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 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연금수령시기를 늦추었거나 늦추기를 희망하는 수급자 또는 예비수급자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를 활용하여 실제 연금수급을 연금개시가능연령 이후로 연기하는 예비수급자를 국민연금 수급연기 희망자로 명명하고, 이들의 재무적 특성 및 비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수급연기희망자와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결혼여부,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연금 수급연기희망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이거나 기타(사별, 이혼 등)보다 기혼자인 경우가 많았고, 55세부터 59세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78%에 달하였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비중이 낮았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연기희망자와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재무적 특성과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소득, 월평균생활비, 월평균저축, 거주주택자산, 임대차보증금, 사용자산(운송수단), 현금성자산, 연금보험 예상수령액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보다 국민연금 수급연기희망자의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그리고 저축수준이 더 높았으며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부동산 자산과 이동 수단)의 총액 또한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연기희망자는 상대적으로 유사 시 현금으로 운용 가능한 유동화 자산인 현금 및 은행 예금의 총액, 향후 연금보험 수령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적으로 부채로 구분되는 임차인의 월세보증금은 국민연금 수급연기희망자가 국민연금 미가입자보다 더 적

었다.

셋째, 수급연기희망자와 미가입자의 비재무적 특성을 나타내는 건강상태 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삶의 전반적 만족도, 사회제도에 대한 기대수준 중 국민연금제도 기대수준, 직업만족도, 주관적 계층 인식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국민연금제도 기대수준이 낮은 반면 수급연기희망자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상태만족도, 경제상태 만족도, 삶의 전반적 만족도, 직업만족도 또한 미가입자보다 수급연기희망자가 더 높았다. 즉 미가입자보다 수급연기희망자의 사회복지기대수준과 다방면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더불어 두 집단이 사회적 위치를 주관적으로 가늠해볼 때 미가입자보다 수급연기희망자가 자신의 위치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연기연금 희망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계획 연령을 질문하는 문항이 범주형 문항으로 되어있어 연금수급의 희망시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으며, 따라서 제한적인 상황에서 분석대상을 추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설문지를 직접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금수급개시 계획 연령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기연금제도와 조기연금제도에 대한 연구 영역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활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고, 이로써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계획과 인식의 변화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2015),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2016), 알기 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김경아(2013), 최근 국내 중·고령층의 공·사적 노후준비 격차발생에 관한 연구-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분석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3(2), pp. 23-48.
- 김영미(2014),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개선과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복지동향, 188, pp. 32-36.
- 김진성(2015), 가계복지조사로 살펴본 국내 가구 은퇴시점과 은퇴준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5(62).
- 박찬웅(2015), 국민연금가입요인에 관한 성별 격차: 다수준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4), pp. 1-24.
- OECD(2015), Average effective age of retirement versus the normal retirement age 2009-2014, OECD.
- 통계청(2014), 사회보험 가입 현황, 통계청.
- 통계청(2015), 고령화통계, 통계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부모소득수준이 경제적 자립에 미치는 영향

김수진, 박주연, 이초룡(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재학생)
김민정(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최근 대학생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등골브레이커’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대학생들을 빗대어 부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자립할 나이는 아니지만 대학생으로서 부모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용돈이나 등록금을 벌기도 하고, 부모님의 소득에 의존하기도 하며, 또는 일부는 자신의 힘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부모님의 소득수준이 대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충북에 소재한 대학교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중에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현황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였다. 아르바이트 직종은 주로 요식업이나 편의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의 기간은 1개월 이상~2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다. 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은 약 65만원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학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사용할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 중 향후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약 54%였으며 약 62%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자립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월 평균 생활비와 용돈을 알아 본 결과 월 평균 용돈은 약 35만원이었고 월 평균 생활비는 약 52만원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중 스스로 번 돈은 약 18만원 정도였고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돈은 약 33만원으로 생활비 중 스스로 번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적 자립도라 했을 때 이들의 평균 경제적 자립도는 35%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라 경제적 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평균 자립도는 약 43%였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평균 자립도는 약 16%였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부모님 의존도는 약 56%이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부모님 의존도는 약 84%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부모님의 월평균소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님의 소득이 많은 경우 경제적 자립도가 부모님의 월평균소득이 500~600만원인 경우 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

우보다 경제적 자립도가 낮고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약 51.5%의 정도의 경제적 자립도를 보였으나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경제적 자립도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소득이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인 대학생들의 경제적 자립도는 30%에도 미치지 않아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부모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대학생들의 경제적 자립도는 39.7%로 소득이 500~600만원인 집단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의 소득이 400~500만원인 집단의 자립도(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경제적 자립도의 일관되지 않은 경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관계가 정의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유추할 때,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경제교육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는 어떠한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소비행태를 살펴본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평균 용돈금액은 31만원이었고 이에 대한 용돈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8점으로 대학생의 대부분이 자신의 용돈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41점으로 자신의 소비수준이 낭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평균 용돈금액은 39만원이었고 이에 대한 용돈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점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보다 용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비수준은 4점 만점에 2.44점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지출 1순위는 식비, 2순위는 술/담배, 3순위는 쇼핑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지출 1순위는 식비, 2순위는 쇼핑, 3순위는 문화생활/유흥비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경우 정기적인 용돈 이외에 부모님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는 대학등록금, 2순위는 교재비, 3순위는 학원비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가 경제적 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임금 등에서의 불이익이 없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만큼 그에 관련된 부당 고용이나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는 관련교육의 시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경험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과 학교에서 전공과 연계 된 아르바이트를 개발하여 향후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할 것이다. 향후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직업 등에 대한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소득수준과 자녀의 경제적 자립도에서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추가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사회책임투자펀드 선택 인식 및 영향요인

김민정(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조교수)

최근 소비환경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윤리소비는 금융상품의 소비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금융상품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회책임투자의 논의가 주요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사회책임투자는 재무 목표와 함께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투자 과정이며, 기업의 윤리적 활동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만일 사회책임 활동이 우수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우수하다면, 투자자들은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됨으로써 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사회적 책임투자가 다른 투자수단에 비하여 투자자에게 매력적이라면 투자자는 사회책임투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호·박경원, 2014).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최근 소비환경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윤리소비가 금융상품의 윤리적 소비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연구 목표로 하여, 소비자가 사회책임투자펀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책임투자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사회책임투자를 하게 되는 데에는 어떤 영향요인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일반 금융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8일부터 2016년 3월 27일까지 컨슈머인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²⁾.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 문항분석, Cronbach's α ,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Nilsson(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 및 연구대상에 적합하게 설정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들의 사회책임투자 할당 필요인식에서는 공익기관의 필요 인식 평균 32.71%, 개인의 할당 의향이 22.82%로 나타났다.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책임투자를 21-30%, 41% 이상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개인의 할당 의향은 6-10%의 할당비율을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친사회적 태도, 신뢰, 효과성 인지, 재무적 인식, 투자성향 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사회책임투자의 할당 의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친사회적 행동과 신뢰, 효과성 인지를 측정한 항목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책임투자의 할당의향에 있어서는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재무적 인식만 유의하게 나타나, 친사회적 태도나 신뢰, 투자성향에 비하여 소비자들은 재무적인 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인지된 재무적 성과가 소비자의 SRI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Nilsson(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사회책임투자는 소비윤리의 개념을 확장시킨 투자윤리의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사회

2) 2016년 3월 담천(談泉) 소비자연구 후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연구하였음

책임투자를 보편적으로 확대할 때에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사유재산의 투자 대상 제한이라는 측면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라도 사용할 때는 공익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재화 사용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종교단체, 공익재단 등의 모든 재산에도 적용되는 원리로서, 사회적인 담보를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할 때는 공동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윤리적 관점에서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개입할 수 있다면, 금융소비자의 힘으로 기업문화를 건전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형철, 2007).

본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기업의 친사회적, 환경적 태도에 관심을 가지거나 신뢰하고 효과성을 인지하는 등의 특징이 소비자의 사회책임투자의 할당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은 소비자들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한 기관 투자에 대한 사회책임투자 공시의무 구체화, SRI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Nilsson, J. (2008). Investment with a conscience: Examining the impact of pro-social attitudes and perceived financial performance 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Ethics*, 83(2), 307-325.
- Statman, M. (2007).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 *Journal of investment consulting*, 8(2), 17-37.
-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http://unpri.org>
- 강문실 · 김윤숙(2014).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자 태도 및 만족, 재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윤리적인 소비성향 조절효과. *상업교육연구*, 28(6), 479-498.
- 김시월 · 김혜연(2012). 금융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기대 불일치. *Financial Planning Review*, 5(2), 1-33.
- 김형철(2007). 사회책임투자의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5(1), 21-35.
- 박진우(2013). 한국 주식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의 투자성과: KRX SRI 지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2), 267-287.
- 이호 · 박경원(2014). 사회책임투자: 금융소비자의 대체투자수단으로서 성과와 특성. *산업경제연구*, 27(4), 1685-1701.
- 정순섭(2015). 펀드운용사의 수탁자책임과 책임투자,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2015년 하반기 정책세미나 자료집.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2015).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 KFPF 동향조사 109, 1-3.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2015). 2015 한국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분석.

어린 시절 돈에 대한 기억이 돈에 대한 신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손상희(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윤정윤(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박민지(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최근 소비자의 채무습관과 행동문제에 대한 상담과 현장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유발하는 돈과 관련된 역기능적 채무행동을 돈에 대한 잘못된 신념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Klontz 등(2008)은 배우가 대본을 보고 자신의 극중 역할을 수행 하듯이 돈에 대한 신념은 소비자가 채무행동을 수행할 때 대본과 같은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돈에 대한 신념을 ‘돈 대본(Money Script)’ 이라고 명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신념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돈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사회화 이론은 돈에 대한 태도나 신념, 행동이 사회화대리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학습 맥락에서 형성됨을 시사한다. 특히 돈 관련 신념 형성에 대한 어릴 적 부모의 영향은 인생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만큼 성인의 삶에서도 영향력이 지속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 시절 돈에 대한 기억이 성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돈에 대한 신념 척도로는 Klontz 등(2011)의 Money Script 51개 문항과, 어린 시절 돈에 대한 기억 척도로는 Furnham 등(2014)의 Moneygrams 34개 문항으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으며, 전국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녀 68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척도에 대해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거쳐 문항을 정제하였고, 최종 Moneyscript 23개 문항과 Moneygram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각 4개 차원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돈에 대한 신념은 Money Worship, Money Status, Anti-Rich, Money Vigilance의 4개 변수로, 어릴 적 돈에 대한 기억은 Relationship Concern, Parents' Conflict, Secrecy, Balance의 4개 변수로 차원화 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소비자의 돈에 대한 신념은 Money Worship, Anti-Rich, Money Vigilance, Money Status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어릴 적 돈에 대한 기억은 Balance, Parents' Conflict, Secrecy, Relationship Concern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각 돈에 대한 신념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어릴 적 돈에 대한 기억 변수들의 회귀분석 결과 모든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릴 때 Relationship Concern을 많이 경험한 경우 Money Status 신념점수가 높았고, Parents' Conflict를 많이 경험한 경우 Money Worship, Anti-Rich, Money Vigilance 신념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Secrecy를 경험할수록 Money Worship과 Money Status 신념점수가 높았고, Balance를 많이 경험할수록 Money Worship 신념점수는 낮아졌고, Money Vigilance는 높아졌다.